

2010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2011. 04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 2010년 4분기 콘텐츠산업 분야별 분석 및 전망

2.5. 영화산업 분석 및 전망

□ 매출부문

- 영화산업의 '10년 4분기 매출규모를 살펴보면 약 801,275억원이며 영화 상장사 매출액 비중은 2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장사 매출액 분석을 살펴보면 '10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9.9% 성장하였으며 전분기대비 -10.5% 하락하였으며 CBI 분석 결과 4분기 83로 부진함 상황임

□ 수출부문

- 영화산업의 '10년 4분기 수출규모를 살펴보면 약 45억원이며 상장사 수출액 비중은 7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장사 수출액 분석을 살펴보면 '10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12.5% 감소하였으며 전분기대비 43.3% 상승하였으나, CBI 분석 결과 63으로 매우 부진함

□ 고용부문

- 영화산업의 '10년 4분기 고용규모를 살펴보면 29,118명이며 상장사 고용 비중은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장사 고용 분석을 살펴보면 '10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하였으며 전분기대비 16.2% 상승하였으며 CBI 분석 결과 4분기 77로 매우 부진함

□ 영화산업 2011년 1분기 전망

● 영화산업 '11년 1분기 매출CBI는 81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11년 1분기 한국영화산업 통계에 따르면 한국영화관객 수는 '10년 1분기보다 234만명 증가한 1,927만 명(56.3%)로 나타났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외화의 흥행 저조에 기인한 것임

※ 일부 대형 멀티플렉스의 매출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이는 관람요금 인상에 의한 것이며 관객수의 증가에 따른 것은 아님. 또한 일부 흥행작(조선명탐정)을 제외하고는 국내 블록버스터급 작품의 예상외 흥행저조로 영화제작 투자 위축이 예상되는바 영화 제작사들의 매출감소가 우려됨.

- '10년 4분기에는 방학 및 추석연휴 등 특수 요소가 없어 신작 상영을 '11년 1분기에 집중함으로 인해 매출액은 증가한 것임.

● 영화산업 '11년 1분기 수출CBI는 78로 매우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영화산업 수출은 2005년을 기점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작사들의 해외진출이 점진적 확대로 수출 증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10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영화관련 문화수출보험 지원 약89억 원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영화제작(황해(72만달러 수출계약), 악마를 보았다(60만달러 수출 성사))이 이루어져, 이로 인한 해외 수출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영화산업 '11년 1분기 고용CBI는 70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영화 점유율은 상승하였으나, 투자 등 제작환경의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신규 고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